

한라시론



문 영 인
제주농업생명과학박사연구회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농가소득은 제주도가 매년 전국 1위 또는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해 조사한 것으로 도내 농업인들 중 이 결과에 동의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1/4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농외소득이라고 하는데,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허탈함을 느끼게 한다. 9만여 농업인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얻는 부가가치가 지역총생산에 차지하는

지금은 농업소득 향상 정책을 개발할 때

비중이 11%에 불과하며, 농업이 대부분인 1차 산업의 성장속도는 다른 산업에 비해 느리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근래에 비료, 농약, 인건비가 빠르게 인상되고 있어 앞으로 부가가치 생산액은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지사가 취임 100일에 즈음하여 밝힌 내용 중 앞으로 지역총생산액 중 1차 산업의 비중을 8%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고, 이에 대해 수많은 농업인 단체 중 전 농제주도연맹과 전여농 제주도 연합은 농업과 농업인의 상황을 모르는 망언이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11%를 8%로 3%를 줄이겠다는 것은 농업 총생산액을 30% 줄이겠다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1차산업 축소의 대안으로 정보통신, 전자 등의 산업으로 전

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런 방법이라면 이미 도내에 진출했던 여러 업종의 업체들은 이미 철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984년부터 정부에서 농공단지를 농촌지역에 둔 이유도 농촌의 유희노동력을 공장에 취업시켜 농외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입지조건이 좋지 않은 지방 농공단지는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공장가동에 필요한 인력은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확보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정부가 목적했던 농외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업이 어렵다는 것은 농업노동 인력이 줄어들면서 고용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르고, 무기질 비료의 경우 전체 소비량은 감소했으나 단

위면적당 사용량은 정체 상태이고, 수입 원자재 가격은 수출제한조치 등으로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이다. 농약사용량은 감소 추세이나 수입단가는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며, 비료와 농약 가격 상승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 유인은 미미해 주요농작물 소득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의 부가가치는 낮아져 농업인의 삶이 팍팍해 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점에서 도에서 지역총생산액 중 1차산업 비중을 3% 줄인다는 것은 3만여 농업인을 은퇴시켜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빈곤층이 확대될 것이다. 노인 일자리 3만여개를 만들어 정년 없이 종신 고용해 주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증대를 위한 정책을 개발 시행함이 옳은 조정 방향이 아닐까 한다.

사설

업무개시명령에 반발, 총파업 더 꼬이나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 등을 요구하며 6일째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에 대해 정부가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2004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적용한 것이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같은 업무개시명령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4일부터 화물연대가 무기한 운송거부에 돌입한 가운데 시멘트 운송도 중단되면서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건설현장의 공사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관

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근거해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혀 압박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경제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제주지역도 시멘트 대부분이 멈췄다. 앞으로 레미콘 타설을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 건설현장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협상 하루만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가 총파업 닷새 만에 마주 앉아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후 사실상 강경책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총파업이 자칫 더 극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

본격 겨울철 화재 ‘비상’, 각별한 관심을

본격 겨울철을 맞아 화재로 인한 도민 안전이 위협받을 시기다. 각 가정 사무실서 난방용품 사용을 늘리면서 화재 위험도 덩달아 증가,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매년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빈발 현실이 만성화된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때다. 난방용품을 본격 사용하는 계절에 화재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도 소방안전 본부가 12월을 맞아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발생 증가를 우려, ‘화재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다. 최근 3년간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석유난로 등 겨울철 난방용품에 의한 화재사고는 총 87건 이었고, 이중 44%(38건)이 12·1월 사이 발생했다. 화재 장소는 주택 42건(48%), 점포 13건(15%), 창고 12건(14%) 등 순이

었다. 원인도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42건(48%)로 가장 많았다. 겨울철 화재가 12월과 1월사이 주택서 난방용품 취급 부주의로 발생한 사례들이 절반에 가깝다는 통계치다. 화재 피해도 5명 사상자에도 4억4000만원의 재산 피해로 상당하다. 화재는 예방만이 최선이다. 불나고 잣더미된 후 발만 동동 굴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도민 각자가 난방용품 사용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도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다. 소방당국의 전례없는 화재예방 대책 못지않게 도민 각자 화재에 대한 경각심, 화재예방 요령 실천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질 때다. 소방당국은 ‘화재주의보’ 발령에 걸맞게 보다 더 신속한 출동태세 유지, 효율적인 화재에 방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편집국 25시

‘일방적’이란 공통분모



박 소 정
경제산업부 차장
cosorong@ihalla.com

요 몇 달간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단어가 있다. 취재 현장 곳곳에서 마주해서일까. 11월 한 달간 벌어진 상황만 나열해보고 그 단어는 더 명료해진다. 소각처리시설에 대한 일방적 폐쇄 결정으로 해고 위기에 내몰렸다는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들, 일방적인 주차징수 무인기 도입에 강제전환 배치가 우려된다는 제주공항 주차요금 징수 노동자들, 일회용품 보증금제와 관련해 환경부가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영세 카페 점주들의 일방적인 회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도내 프랜차이즈

점주들, 제주감귤농협이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제주감귤노조, 사상 첫 시멘트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해 발동한 정부의 일방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받아들이 수 없다는 화물연대 노동자들. 현장 곳곳에서 터져나온 이같은 외침들에는 공통분모가 있다. 바로 ‘일방적’이란 단어다. ‘결정’, ‘도입’, ‘회생’, ‘통보’라는 단어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뜻하는 ‘일방적’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그 의미는 달라졌다. 누군가는 생전의 문제로, 권리의 문제로 직면했듯이 여전히 지역사회에 소통 부재 현상이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해결책은 없는 걸까. 결국 ‘소통’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하지만 ‘소통’이라는 단어에 ‘일방적’이란 단어가 붙는다면 상황은 해결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어수선한 분위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다.

뉴스-in

“제주시에 누적된 사회 갈등 분출 시기”

AI 확산 예방 ‘동분서주’

○…김희현 정무부지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동분서주.

김 부지사는 30일 최근 도내 야생조류에서 AI가 검출됨에 따라 구좌읍 지역 동부거점소독센터와 하도리 철새도래지를 찾아 방역관계자들에게 “이달 들어 도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건이 검출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차단방역 수칙을 각별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

이어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은 관련 산업을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방역대책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자 통제와 차단방역에 주력해 달라”고 강조. 고대로지자

“검찰 수사 성실히 임할 것”

○…강병삼 제주시장은 30일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짙막한 답변.

취임 직후 약속대로 농지법 위반 의혹 토지가 실제 처분됐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강 시장은 “혼자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처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면서 “처분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

한편 강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배포한 100일 회견문에서 “우리 시는 그동안 누적되었던 사회 갈등의 분출을 경험하고 있다”며 “법과 질서를 확고히 지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피력. 전선희기자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북비 : 50,000원

전화 010-7301-7737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서귀포시정소식

2023 동계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 모집기간 : 2022. 12. 1(목) ~ 12. 9(금)
- 모집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80명(학교별 전체 학급수에 따라 모집인원 차별화)
- 운영기간 : 2023. 1. 16(월) ~ 1. 20(금) / 09:00 ~ 14:00 (1일 5시간 운영)
- 운영장소 : 서귀포시평생학습관
- 교육내용 : 토론의 원리와 방법 특강, 토론 단계별 실습 등
- 교육과정 : 중·고등부 4개 반 80명 - 기본과정(중등) 2개 반 심화과정(중등·고등) 2개 반
- 참가비 : 무료(월드카페 토론교재, 점심 제공)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소속 학교로 제출
- 문의사항 :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 064-760-3843)

제1회 서귀포시 청년이음캠프 참여자 모집 알림

- 신청기간 : 2022. 11. 29(화) ~ 12. 8(목)
- 참여대상 : 만 19세~39세 미만의 서귀포시 거주자 또는 직장인
- 운영일시 : 2022. 12. 10(토) 10:00 ~ 16:00
- 운영장소 : 청년다락2호점, 서귀포시평생학습관
- 운영내용 - 청년정책제안 공유회 : 청년정책 제안 결과 공유 및 선정, 전문가 정책자문 및 키워드 강연 등 - 청년 이음 프로그램 : 청년살롱(이미지메이킹), 착해가지구(리사이클), 내뽕이아기, 청년시네마 등
- 참여방법 : 참여신청서 이메일 제출(ss0604@korea.kr)
- 문의사항 :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 064-760-3832)

분할합병 공고

주식회사 이지정보기술(이하 “갑”)에서는 2022년11월30일, 주식회사 건우정보통신(이하 “을”)에서는 2022년11월30일, 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갑”은 그재산(영업)의 일부(정보통신공사업)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되 분할되는 부분의 “갑”의 권리 의무는 “을”이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지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2년 12월 01일

(갑) 상호 : 주식회사 이지정보기술
통신공사업 면허번호 : 180064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88 2층(일도이동)
대표이사 : 이 성 준

(을) 상호 : 주식회사 건우정보통신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동 8길 15(이도이동)
대표이사 : 설 정 윤

모지후손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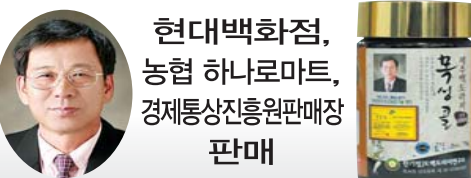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만에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찾은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모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특별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계곡문로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